제 1245호 1991년 11월24일 창간 2015년 11 월 22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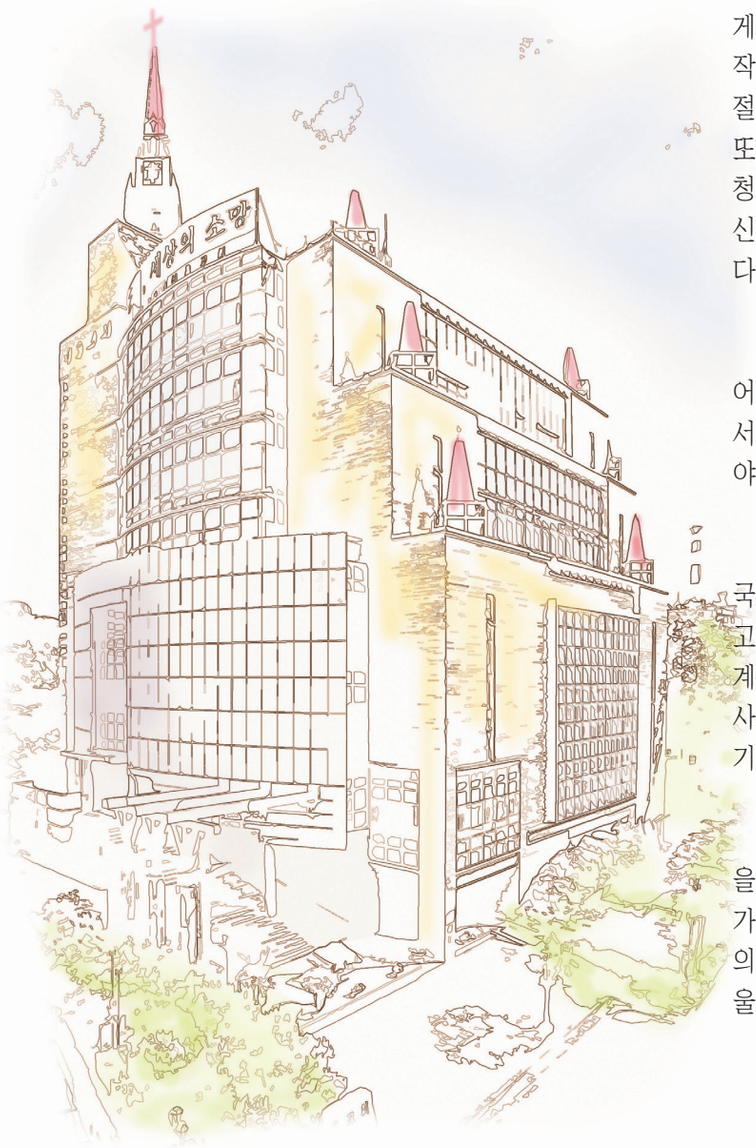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교회설립 24주년 메시지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때, 강 가운데에서 큰 돌 열두 개를 취하여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설립 24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교회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현동 시절, 반포동 시절, 그리고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봉헌할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교회 비전과 역할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청지기 세미나, 홍해작전, 사랑의 바자, 사명자 대회, 또한 목회자 신학 세미나와 킴치 세미나 등과 같은 사역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루며, 교구 다락방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체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밝히고, 사그라져 가는 세계교회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횃불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서울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교회설립 때의 사랑과 헌신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그리하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담임목사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 및 장로 임직식

제 14대 장로 : 차도훈 · 주동재 · 홍일성 (연령순)

차도훈 피택장로

주동재 피택장로

홍일성 피택장로

오늘은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며 장로 임직식이 있다.

지난 5월 17일(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제 14대 장로 3명 (차도훈, 주동재, 홍일성)이 각각 선출되었다. 피택 된 이들은 5월 23일(토)에 시작한 교육과 훈련을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13일 (금) 당회 면접을 모두 마쳤다. 임직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한다.

2016 동계비전트립팀 팀원모집

2016년 1월 20일(수) – 1월 27일(수) / 미얀마 양곤

2016년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미얀마 양곤지역을 방문하여 성경학교와 문화사역, 교사수련회 등을 통해 가정교회와 지도자를 지원하고자 팀원을 모집중에 있다.

미얀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길 소망하며 신청은 11월 29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 문의 : 단장 박권준 집사(010-9630-5381)
총무 마승우 집사(010-2977-7545)

2015 사명자대회 승전보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 오늘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이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5년 사명자대회를 10월 4일(주)부터 11월 22일(주)까지 50일간 진행하였다.

릴레이 자율기도, 다니엘 기도 등 기도운동과 마음에 품고 있던 VIP를 전도하여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개최하였다. 18일(수)까지 기도자 5,886명, 성경 25회독을 하였다. 또한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아버지의 마음"(롬 8:15)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감사하는 승전보고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할 예정이다.

사진 : 허 숙 권사(편집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93)

(문 193) 계시록 7:3-8과 14:1의 144,000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 계시록에는 불을 맡은 천사(14:18) 물을 맡은 천사(16:5)가 있고 바람을 맡은 천사가 있다(계7:1) 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전쟁의 재앙을 가리킵니다(렘49:36-39, 51:1). 하나님의 명령이 바람을 맡은 네 천사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계7:3)고 하셨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4,000이라는 것입니다.

14만4천은 실수라기보다는 상징적 숫자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7이나 곱한 12는 모두 만수이나 전자는 주로 신성한 사건의 만수로 사용되었으나 후자는 신성함과 세속적인 사건에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12(3x4)의 자승인 144는 최고의 만수를 가리키고 거기에 세속적 만수인 10을 3승한 1000배를 하여 이루어진 144,000은 결국 하늘과 땅에 공통되는 큰 숫자요 만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의 수가 많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 지파에서 12,000은 12에다 10으로 세 번 곱한 것인데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나신 지파이므로 초두에 놓였고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것은 에브라임은 교만했고(삿8장, 12장) 단은 적그리스도 지파로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창49:16-27, 삿18:18-26, 신33:22, 렘8:16) 그러나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들어가 있고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나란히 들어감으로 12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사도가 합쳐 24장로로 대표되기도 하지만(계4:4, 5:8, 11:16, 19:4) 12를 제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민31:4-6) 144,000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들 144,000은 순결과 성실성이 강조되고 그 이마에 인이 쳐진 이들입니다. 영적 간음과 혼음을 하지 않은 이들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입니다(계19:9).

14만4천에 대하여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이들(J.B. Payne, Bengel, Alford, Lenski)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심판 달에 12 지파가 다시 살아나서 성도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12지파 중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Harold Lindsell).

그러나 14만 4천은 유대의 12 지파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7:9)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천사도 셀 수 없는 성도의 무리를 말하나 하나님만이 아신 바 된 무리인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임직을 받으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차도훈 피택장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덧입어 서울교회의 장로로 피택 받아 교회의 직분자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직분을 맡음이 개인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종의 길임을 잘 알기에 이후로는 더욱 힘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용서와 사랑, 헌신과 순종을 본 받아서 충성된 주의 종으로,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지체로써 목사님의 목회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필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전심을 다 하여야함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이웃 사랑의 서울교회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우리 모두가 이 전통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하여 솔선수범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겸손하고 신실한 장로로서 신앙과 삶에서 신행일치의 본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때,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임직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주동재 피택장로

타다 남은 부지깽이만도 못한 저를 서울교회의 장로로 임직케 하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갱신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서울교회가 예언자정신과 사도정신,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였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만 영광 드림에 집중하여 , 본질적인 것은 철저히 지켜나가고 비본질적인 것은 개혁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고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교회속의 작은 교회, 다락방과 교구를 꿈꾸며 다락방을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침이슬같이 일어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고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은혜를 앞세우겠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친절하며 미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요를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부르짖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을 받으며

칭찬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홍일성 피택장로

지금까지 서울교회에서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는 24년 전 아픔 속에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로 지금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원로목사님의 성경적 지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순종, 열정과 땀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일꾼의 자세로 섬기며 담임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목표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교회목표인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실천하고 이웃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제가 받은 믿음의 유산인 서울교회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3대째 이어지는 장로직분과 “예수님을 조금 더 열심히 믿어라”고 유언하신 장모님을 기리며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경로대학을 마치며

삼십일회 샬롬경로대 종강날

정애신 권사 (11교구, 소망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네

음악반 즐거운 찬송 기쁨을 주고
건강 체육반 춤 솜씨 웃음꽃 피네

손뜨개질 만들어 목에 두르고
중국어 회화하니 멋스러워라.

진갑 미수 황혼 길 바라보면서
서른한 살 씩씩한 젊은이 같이
찬양하며 춤을 춘 샬롬 대학생

맘과 정성 드려
수고한 섬김 위원들
따듯한 사랑에 감사드려요.

오곡이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
단풍 들고 서리 오는 가을을 지나
다가오는 여생은 봄날 같기를
우리 모두 찬송하며 기쁘게 살리

돌아오는 성탄절 기다리면서
믿음 더욱 굳건히 다짐을 하고
우리 교회 샬롬 대학 구원의 방주
엎드려 주님께 감사드리세

샬롬 경로대학 영원하여라~.

나의 하나님

아들의 첫 월급,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원과 MOU를 체결한 호산나 대학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조기 취업된 호산나대학 김신탁 엄마입니다.

우리 신탁이가 저한테는 아직 어린 아이 같은데 이렇게 의젓한 직장인이 되어서 첫 월급을 부모님 쓰라고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학교, 대학에서 신탁이를 잘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탁이를 낳고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부터 근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신탁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 학교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서울교회에서 설립한 호산나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 아빠와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망설임 없이 호산나학교에 입학을 결정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신탁이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부모로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호산나대학에 입학하던 날 신탁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대견해서 남몰래 눈물도 흘렸습니다. 신탁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그만 둘까도 생각했는데 서울교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신탁이가 구김살 없이 서울교회 사랑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는 학생회 임원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서울교회 사무국에 실습도 성실히 했던 것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이제 신탁이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결혼도 해서 가정을 가졌으면 하는 꿈도 꿔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이가 받은 첫 월급 100만원을 제가 받기는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장학금도 받았으니 신탁이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주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호산나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2일(주) 섬김의 교회 성례식을 집례하고 서울교회설립24주년 감사 및 장로 임직예배 설교를 한다. 24일(화) 한국웨스트민스터신대원 채플설교, 26일(목)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 발행인, 사장 취임감사예배 격려사, 제18차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정기회를 소집, 27일(금) 서울교회 2016년도 아브라함선교회 임역원 예비모임 인사회 예배 설교를 한다.

■ 공연: 5교구 구민영 성도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오페라"람메르무어의 루치아"주인공 루치아역 출연, 대전 예술의전당 아트홀,11월26일-29, 오후7시30분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11.22)
에스더 전도회(11.29)

■ 금주의 식사 제공 : 제14대 장로 임직자 일동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지난 24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서울교회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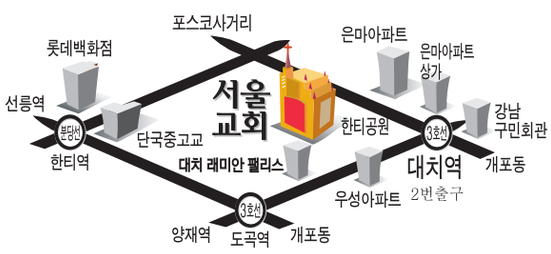
2. 임직 받은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더욱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3. 사명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결신하신 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Ⅰ,Ⅲ,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